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발행처 군산신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담당자 교사 김길자
☎ 730-2098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명통시(明通寺).

조선의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입니다. 명통시에 소속된 장애인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 번씩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노비와 쌀을 받았습니

다.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제 해주었으며,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에겐 시종(일종의도우미)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 자식들이 장애인을 정성껏 부양하면 그 집을 포상하는 장려제도를 실시했으며, 반대로 장애인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엄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겨, 점복사, 독경사, 악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였으며, 장애인은 신분

에 상관없이 능력위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조선 시대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없었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척추장애인 허조는 조선 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간질장애인 권균은 종종 때 우의정을, 지체장애인 심희수는 광해군 때 좌의정을, 청각장애인 이덕수는 영조 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오르는 등 역사를 빛낸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 반포 1, 2년 전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장애의 유무보다도 그 사람 자체의 능력과 노력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그랬기에 박연(세종실록 13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옛 제왕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에게 현송(絃誦,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음)의 임무를 맡겼으니 이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사 채널 e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정창권 저, 문학동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정창권 저, 글항아리)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은 제 37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회의 도움이 보다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생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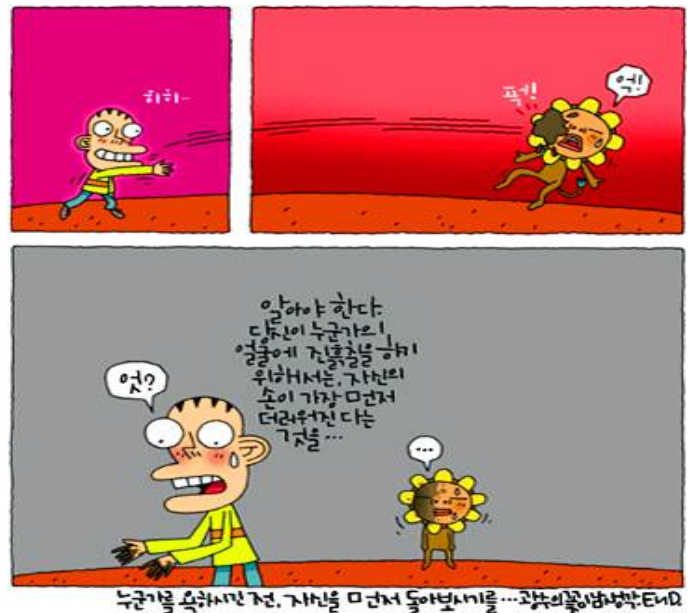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 금지법

광수 생각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 | |
|--|--|
| <p>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 <p>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
| <p>차별사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p> | <p>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2017.4.14

군산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